

한·중 여성소설 특징 비교*

노혜숙**

<목 차>

1. 서론
2. 한·중 여성소설의 발전
 - 1) 한국 여성소설의 발전
 - 2) 중국 여성소설의 발전
3. 1980년대 한국 여성소설의 특징
 - 1) 중산층 여성의 문제 대두
 - 2) 사회의식의 표출
4. 신시기 중국 여성소설의 특징
 - 1) 여성의식의 대두
 - 2) 풍성한 역사 민족의식
5. 결론

1. 서론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유교문화권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성문제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가질 수 있다. 한 중 양국의 여성은 오랜 전통 사회 중에서 유교 사상의 속박을 받아 남성우월주의와 남녀 불평등의 억압을 받아 왔다. 한·중 양국의 역사 또한 비교적 近似한 역사적 발전을 이루어 갔다. 한국과 중국의 여성문학 발전 또한 상당히 비슷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특히 한국에 있어서 1980년대와 중국에 있어서의 신시기의 여성문학은 동일한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게 된다. 1789년 프랑스 혁명과 1791년에 발표된<여권선

* 본 논문은 숙명여자대학교 2005년도 교내 연구비에 의해 작성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언>이 선포되어 여성해방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여성의 주체의식이 생겨났다. 그 후 여성해방운동은 끊임없이 심화되어 60년 후기 70년대 초기에 여성주의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으며, 한국과 중국 모두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여성주의 운동의 깊은 영향을 받게 된다. 한·중 여성문학은 이 시기부터 여성이 주체가 되는 여성문학이 붓물 터진 듯이 쏟아져 나오게 되며, 양국의 여성문학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또한 양국의 여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한·중 여성문학 발전의 역사적 전개를 통하여 1980년대와 신시기 여성문학의 주요한 작품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유교 사상의 토양 위에서 동일한 여성 문제의 고통을 겪으며, 비교적 같은 시기에 여성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은 양국 여성문학의 특징은 어떻게 다른가?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것인가? 를 통하여 여성문학의 발전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여성문학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다. 여성문학, 여성주의문학, 여성해방문학, 페미니즘문학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 중국에서의 여성문학의 논의 또한 다양하다. 女性文學, 女子文學, 婦女文學, 女性主義文學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논의를 축소하고, “여성작가가 여성과 남성 및 모든 사회생활을 쓴 작품을 婦女文學이라고 통칭한다”¹⁾를 인용하여 양국의 공통 언어인 女性文學 또는 女性小說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한·중 여성소설의 발전

1) 한국 여성소설의 발전

한국문학에 있어서 여성소설의 등장은 191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7년 金

1) 呂晴飛 主編, 《中國當代青年女作家評傳》, 中國婦女出版社 p.4

明淳의 <疑心の少女>가 나온 시기가 한국 여성소설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1919년 3·1운동을 전후하여 본격화된 신문화운동과 활발한 여성운동으로 인하여 선각자적 신여성들이 문단에 등단하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봉건적 사회 인습과 성차별의 제도에 맞서서 저항하였으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남성중심의 문학에서 여성문학의 위치를 굳혔던 시기였다. 1930년대는 여성의식이 깨어나는 여성문학의 개혁시기이면서 여류문학의 성숙기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8·15이후 여성들은 여성의 인간화를 주장하며 여성단체를 조직하여 여권신장을 내세우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새로운 여성문학이 확산되면서 다시 6·25의 전쟁을 겪게 된다. 1960년 4·19와 5·16을 거치면서도 여성의 참다운 해방은 성취되지 못하고 1960년대부터 추진되어온 산업화의 물결은 1970년대에 와서는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산업화는 부의 축적과 물질의 풍요를 가져왔지만 사회는 비인간화되고, 문학계는 감각을 자극하는 상업주의 문학이 전성기를 맞게 된다. 1970년대 문학은 民衆文學 혹은 勞動文學의 시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문학이 민중의 삶 속으로 들어와 인간의 이쁨과 고통에 동참하면서 공통의 답안을 제시하려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여성문학의 각성은 민중문학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학자 조혜정은 민중이란 바로 억압·소외된 집단을 뜻하며 민중에는 노동자, 여성이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당하는 억압과 소외를 다루지 않는 민중운동은 부분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²⁾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억압은 더욱 가중되었고 여성문제와 노동문제는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여성해방문학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대두된 것은 이러한 사회와 문단의 분위기 속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였다. 《여성》, 《또 하나의 문화》, 《여성운동과 문학》 등의 책들이 출간되고, 여성문제 연구단체들이 결성되면서 여성문제 연구가 시작되었다. 여성주의 문학, 여성주의 문학비평은 곧 여권론적 문학, 여성해방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여성의 억압상태를 밝히고 사회구조와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주의 문학의 기본 관점은 남성중심주의와 성별주의 기부장적 이데올로기

2) 조혜정, <恨 사슬 풀고 자기언어 가지기> 《문학사상》, 1990.2.

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여성주의 문학이 본격화되면서 여성소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 소설들은 이전의 단계를 벗어나서 여성을 억압하는 현실의 고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1980년대 여성소설 중에는 분단문제라든지 사회변혁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 있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중산층 여성을 다룬 작품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것은 또한 1980년대 여성소설의 한계가 되기도 했다.

2) 중국 여성소설의 발전

중국에서의 여성문학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보통 중국 여성문학의 전개과정을 5시기로 나눈다.³⁾

- 1)中國女性文學의 胚胎時期- 1919년 이전의 고전문학
- 2)中國女性文學의 覺醒時期- 1919-1930
- 3)中國女性文學의 擴大時期- 1930-1949
- 4)中國女性文學의 空白時期- 1949-1976
- 5)中國女性文學의 成熟時期- 1976~현재

중국 여성문학의 배태시기라 함은 5·4이전의 고전문학 속에서 여성 각성이 배태된 시기로서 이 시기의 여성문학은 夫權文化에 속해 있으면서 여성의식은 투철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고대 여성문학은 여성문학으로서의 면모를 잃은 채 정통 문학에 종속되어 그 망망대해에서 존재가 가려질 수밖에 없었으니, 이 시기의 여성문학은 본격적인 여성의식이 없었던 여성문학의 胚胎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중국 여성문학의 각성시기는 1919년부터 1930년 까지를 이른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서구사조가 들어오고 民主와 科學을 기치로 삼는 5·4운동이 일어났다.

3) 노혜숙, <중국여성문학의 전개과정과 특징>, 《중국소설논총》 p 244, 2002, 2.

5·4운동은 노동자운동 청년운동 여성운동의 중요한 발단이 되어 중국여성운동의 새로운 기원을 열었으며, 5·4운동을 기점으로 중국의 여성운동 역시 여성 스스로 여성문제를 제기하고 여성의 관점에서부터 여성문제를 깊고 폭 넓고 깊이 있게 인식하게 되었다. 즉 5·4운동의 정신적 성과는 人間의 發見과 女性의 發見이다.

이 시기 여성작가들은 소재의 선택에서 자신의 정감까지 모두 여성적인 특징이 나타나 있고 여성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신문학운동과 보조를 맞추며 봉건에 반대함으로써 민주와 자유를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입장에 서서 부모가 상대를 정해주는 혼인을 고발했으며 전통도덕 규범에 반항하고 자유연애와 혼인의 자주성 그리고 개성해방을 요구하였으며 가정에서 사회로 진출하기를 요구하였다. 즉 이 시기의 여성작가들은 봉건적인 사회에 반대함으로써 남녀평등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여성문학의 확대시기는 1930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인 1949년 이전까지를 이른다. 중국의 내전과 중일전쟁을 치르며 여성작가 수가 감소하게 된다. 이는 여성작가 수가 격감되고 여성의 문제와 감정을 표출한 작품들이 한계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0년대 이래로 끊이지 않는 국내전쟁과 민족전쟁을 들 수 있다. 이런 전쟁기간에는 민족의식과 사회책임감을 갖춘 작가들은 전쟁에 참여하였고, 이 같은 민족국가의 존망 앞에서 여성문제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0년대 이래 민족구국과 대중문학의 요구는 날로 고조되었고 여성작가 중 어떤 이는 전장으로 나갔고, 어떤 이는 고향으로 나아가거나 대륙을 향해 나갔으며 작품에는 전쟁의 초연이 나타났고, 대중이라는 복합형상이 나타났다. 이 시기의 여성작가들의 여성의식은 사회의식으로 대체되었고 제재선택도 다양하게 확장되어갔다. 이때부터 여성의식은 성별의식에서 점차 사회와 역사를 의식하며 확대되어간다.

중국 여성문학의 공백시기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에서부터 사회주의 17년간의 비판과 숙청 그리고 문화대혁명 시기를 말하며 1949년 中華人民共和國가 건립된 후, 중국사회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서 중국여성의 면모를 일신케 했다. 여성들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광범하게 국가의 정치생활에 참여하

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지주권을 획득하게 된다. 즉 土地改革이나 新婚姻法은 여성으로 하여금 남녀평등의 광활한 길을 개척하게 해주었다. 건국 후 17년간 혁명전쟁의 고난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재능 있는 여성작가들은 문예창작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숙청과 대비판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남성작가들처럼 여성작가들도 창조력을 잃어버리고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된다. 작품에서 나타난 것은 사회집단의식으로 인간의식과 여성의식은 모두 속박되었다. 민족국가의 존망 앞에 부녀문제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쩌면 이 같은 상황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 후 10년의 긴 세월간 문학에 커다란 공백기가 나타났다.

중국여성문학의 성숙 시기는 1976년 모택동 사망 이후 중국사회가 변화를 겪게 되면서 여성문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문학발전의 새로운 시기로서 中國現代文學이 건국초 17년간의 社會主義文學의 개혁과 비판 그리고 10년간의 문화대혁명, 1976년 모택동 사망과 4인방의 몰락 등의 곡절 많은 아픔을 겪은 후이다. 1978년 黨11期3中全會가 열리고 그 후 1979년부터 문예는 진정한 해방을 얻게 되었으며 문학은 주제의식이 각성되기 시작했고 문학창작은 날로 번영하였다. 이 시기를 新時期⁴⁾라고 한다.

3. 1980년대 한국여성소설

1) 중산층 여성의 문제 표출

1980년대 여성소설의 두드러진 특징은 중산층 여성의 문제를 다룬 소설들이

4) 중국 현대문학의 시기구분에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에서부터 1976년 모택동 사망까지의 27년간의 문학에 상대적 개념으로 1976년 모택동 사망에서 현재까지를 新時期문학으로 나누고 있다. 90년 이후는 後新時期라고 하기도 한다. 1992년 9월 26일 《文藝報》에 일련의 학자들이 ‘後新時期문제를 제기한 이후 북경대학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그 후 《當代作家評論》, 《文藝爭鳴》, 《匯文報》 등에 잇달아 이와 관련된 글이 실리면서 문단의 관심을 모았다.

많이 등장했다는 것이며, 이들 소설이 소재 면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가부장제에 도전하는 여성작가들의 의식은 남아선호사상, 고부갈등, 가정 내에서의 여성 역할에의 회의와 자신의 실존 확인을 위한 탐구 등 중산층 여성의 개인적인 억압의 문제는 깊어졌다고 볼 수 있다.

동·서양에 공존하는 성차별의 토대는 바로 가부장적 권력구조에 있다. 여성 해방 운동가들은 여성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가부장제 문화가 타파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박완서의 작품에서는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투철한 저항 의식이 넘쳐흐른다. 그가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으로 쓴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와 《해산바가지》는 가부장제 남성지배사회의 가장 상징적인 男兒選好사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는 <여성신문>창간호(1987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여성의 문제를 가지고 연재한 것이다.

차문경은 초혼에 실패하고 독신 상태에서 대학동창 김혁주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가 임신한 상태에서 헤어지게 되며, 혼자서 아들을 낳아 키우며 놀이방을 운영한다. 후에 시어머니가 문경이 낳은 아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재판 신청을 했으나, 오히려 패소하고 문경은 아이를 뺏기지 않는다.

박완서는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박혀 있는 남아선호사상을 비판하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작품을 썼다. 그리고 작품의 결말에는 비극의 모든 원인을 남자와 가부장제의 탓으로 돌려 버리며 “남자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여자를 짓밟고 능멸해도 된다는 그 천부적 권리로부터 자유로운 신중남자”⁵⁾로 아들을 키워보겠다고 다짐을 한다.

《해산바가지》 역시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남아선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남아선호사상은 가부장적 남성 지배사회의 의식을 가장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중년의 여성이 두 번째에도 또 손녀를 얻게 되어 속상해 하는 친구를 보면서 돌아가신 자신의 시어머니를 회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가는 남아선호사상의 피해자는 여성자신이면서, 여성자신이 남

5) 박완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삼진기획, p.159

아선호사상을 존속시키는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비판한다. 두 번째에도 딸을 낳은 며느리를 죄인 취급하며 병실에서까지 노여움을 폭발시키는 친구의 모습과 신세 대 여성인척 하지만 딸을 낳은 사실에 울며 속상해 하는 며느리의 모습, 이 두 모습이 바로 남성우월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인 것이다.

박완서는 앞의 두 작품 외에도 장편소설 《살아있는 날의 시작》을 발표하였으며, 지금까지 여성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현모양처의 역할에 순종하던 한 여성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몇 차례의 부당한 경험을 하면서 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살아있는 날의 시작》은 여성에 대한 억압적 현실을 고발하고 남녀가 다 함께 평등한 인간적 삶을 지향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박완서의 소설에서 우리는 가부장제가 붕괴하는 소리를 확실하게 듣고 있다. 그래서 남성 비평가들은 이 작가를 집안에서 남자의 의미를 고의적으로 거세시키고 드는 무서운 여자라고⁶⁾ 비평을 하고 있다.

이경자는 여성문제 연작 소설집 《질반의 실패》를 출간했다. 이 소설집에는 12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고부갈등, 맞벌이 부부, 아내폭력, 남편의 외도, 혼인빙자간음, 매춘, 성의 소외, 이혼, 빈민여성 등의 부제가 보여주듯이 다양한 측면에서 여성문제에 접근해 들어간 작품이다. 이 소설집은 여성들이 겪는 부당한 고통과 피해 사례들을 피해자인 여성의 시각을 통해 문학적으로 형상화 해놓은 최초의 소설집이라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9편의 단편 중에서 가부장제의 성차별 속에서 여성이 경험해야 하는 불공정한 희생을 날카롭게 조명하고 있는 <안팎 곱사등이>가 있다.

<안팎 곱사등이>는 맞벌이 직장여성이 가정과 직장에서 이중적으로 시달리지만 정작 그 어느 하나에도 이해받지 못하는 현실을 다루고 있다. 작가는 어느 한쪽에서도 완전할 수 없는 직장여성의 상황을 ‘곱사등이’라는 불구의 삶으로 비유하고 있다.

인호는 아이 둘에 무역회사 과장인 남편을 가진 30대 중반의 대졸 은행원이다.

6) 홍정선, <한 여자 작가의 자기 사랑>, 《샘이 깊은 물》, 1985, 11.

남편보다 많은 월급을 받는 그녀는 아파트도 장만하고 피출부를 쓰는 중산층 여성이다. 그러나 그녀를 둘러싼 현실은 결코 너그럽거나 여유롭지가 못하다. 이기적이고 무관심한 남편은 아내의 경제력에 기대어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즐기면서도 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불편함에는 매우 인색하다.

전통적인 남성중심주의에 젖어 있는 시어머니는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강요한다. 인호를 건방지다고 힐난하는 큰 동서 등 자신을 몰아붙이는 이러한 현실에 굴복하여 사직서를 내는 것으로서 불구적 삶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문명이 극도로 발달된 현대사회에서도 전통적 유교사상에 뿌리를 둔 남존여비의 관습과 봉건적 가부장제의 잔재는 고스란히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경자의 《절반의 실패》는 최초의 여성소설집이라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너무 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⁷⁾ 즉 피해자로서의 여성과 가해자로서의 남성을 첨예하게 대비시키는 사건 전개와 맞물려 있는 그 분노와 증오는 말할 것도 없이 여성문제를 철저히 남성·여성의 대립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태도로부터 나온 것이다.

중산층 여성에 문제 중에 가부장제의 토대를 이루는 남아선호사상, 고부갈등 이외에도 여성의 실존적인 자기 물음을 소설적 자기 주제로 취급하고 있는 작가들이 많다. 즉 자아정체성 추구라는 힘겨운 과제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여성의 역할은 아내, 어머니, 며느리로 규정되어왔다. 이것은 가부장제 사회가 강제로 짊어준 역할일 뿐 여성자신들은 자신의 실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부장제 틀 속에서 여성들은 자기의 역할에 대하여 회의하며 자아의 정체성을 추구하게 된다.

오정희의 <바람의 녀>은 중년주부의 불안과 방황을 한 여성의 내면적 성찰의 과정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인 최은수는 다섯 살 난 아들을 둔 지극히 평범한 주부이다. 미술대학 출신으로 늦은 나이에 맞선을 보고 남편 세종과 결혼하였다. 두 사람은 결혼 이후 다른 신혼부부들 못지않게 행복하게 살았으나 결혼 6개월쯤 은수의 무단가출로

7) 박혜경, <분노와 대결을 넘어서>, 《문학사상》, 1990, 2.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어느 날 세중이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없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일주일 후에 신혼 여행지의 호텔에서 아내를 발견한다. 그러나 아내는 혼자였으며 어떠한 부정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세중은 그녀를 용서하고 함께 상경한다. 이들은 전과 다름없는 행복한 생활을 하였으나 또 다시 은수는 기출한다. 가정적으로나 남편과의 사이에 갈등이 없는데도 그녀는 무단기출하는 것이다. 세중은 충격보다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몸을 떨었다. 아이가 생기고도 은수는 1년에 서너 번씩 기출을 한다. 한번은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그냥 종점에 내려 산에 올라갔다가 윤간을 당한다. 세중은 아내의 우울증과 바람같이 떠도는 녀를 이해하려고 애쓰지만 끝내 별거를 결심한다.

물론 <바람의 녀>에서 은수를 그토록 방황하게 하는 것은 진부하고 권태롭고 무의미한 일상적 삶으로부터 실존을 향해 탈출하는 것⁸⁾이며, 그 깊은 심연의 허무 속에는 어린 시절 가족의 참혹한 종말을 목격했다는 유년기로의 복귀의식⁹⁾이 있는 것이다.

오정희의 또 하나의 작품<어둠의 집>은 등화관제 훈련을 실시하는 20여분 동안에 주인공 여자의 의식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함께 그려져 있다. 어둠을 통해 주부들의 일상적인 권태와 무의미를 묘사한 작품이다. 식구들이 귀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20여분 동안의 등화관제는 낮설고 막막하게 다가온다. 외적으로는 50대의 행복한 가정주부가 어둠 속에서 균열되어버린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녀가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과 견딜 수 없는 막막함은 묻혀진 윤간의 기억에 관계된 것이기도 하지만 혼자 고립된 듯한 내버려짐과 중년주부의 허무감이 흐르고 있다. 그의 허무감은 정신적 광기로 나타난다.

오정희의 경우 일상적 삶에 갇혀 사는 중산층 주부의 의식을 집요하게 파고들기는 하지만, 주부의 문제를 사회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적·심리적 차원으로 환원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에 관한 고정관념을 유지시키고 있다¹⁰⁾고 비평을 받고, 역사적 전망을 상실한 중산층 지식인의 과잉된 자의식의

8) 성민열, <존재 심연에의 응시>, 《바람의 녀》, 문학과 지성사, 1986.

9) 조혜정, <한국 페미니즘 어디까지 왔나?>, 《또 하나의 문화》 제 3호, 1987.

소산¹⁰⁾이라는 비평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가부장제 아래에서 여성은 남성의 보조적인 존재로 집을 지키는 파수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부각시킨 작품으로는 김향숙의 <유리 파수꾼>이 있다. 이 소설의 여성등장인물들은 이름이 없고 원장처, 실장처 등 남편의 직위에 의해 불려진다. 이것은 여성인물들의 존재가 철저하게 남성 집단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에 불과하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목이 말하는 유리라는 의미는 바로 가정이 되며, 남편들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화목한 가정에서의 가장으로서의 능력과 직장에서의 유능함을 같이 판단하는 회사방침에서 확인된다. 실장처는 자신의 삶을 가면의 삶으로 느끼게 된다. 자신만의 시간은 허용되지 않고, 남편이 없는 시간마저도 부녀회라는 테두리 속에서 남편의 직분에 어울리는 모범주부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이제까지의 삶이 결코 한 인간으로서의 것이 아니고, 남편의 직분과의 관계 속에서 허위적으로 살았던 것에 불과했음을 인식하는 순간 그녀는 목젓과 식도의 종양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정주부란 사회 모순이 집약된 집단으로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좌절감의 표현은 <바람의 넋>에서는 은수의 기출로, <어둠의 집>에서의 그 여자는 정신적 광기로, <유리 파수꾼>에서는 편도선 종양으로 환치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2) 사회의식의 표출

197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民族主義, 民衆文學의 영향으로 여성소설에서도 사회의식이 강한 작품들이 생겨났다. 여성이 자신의 문제를 가족 혹은 가정의 테두리에서 한계를 정하지 않고 전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여성적 삶의 의미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0) 박혜란, <여성문학 훑어보기>, 《삶의 여성학》,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p199.

11) 성민엽, 위의 논문.

김향숙의 작품 <부르는 소리>는 분단문제를 한 여인의 현실을 통하여 묘사하고 있다. 전쟁의 와중에 남편을 여의고 자식마저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외로운 노파인 웅천택은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한 인물이다. 일생동안 불행만을 계속 겪어야 했던 그녀는 지금 현재도 혼자서 감자나 번데기를 구워 팔며 하루 방삿을 염려해야 하는 처지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물욕도 집착도 없이 살아간다. 작가는 민족분단과 남북대결의 역사적 사실이 한 여인의 일생을 얼마나 고통과 고난으로 묶어 놓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아이의 허기를 달래느라 준 구운 감자 때문에 아이는 웅천택을 뒤따르게 되고 그 순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궁핍과 좌절 속에서도 훈훈한 인간미를 잃지 않는 웅천택의 모습은 억눌리고 빼앗기는 삶을 살면서도 나눔을 통해 자신을 지켜가는 모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부르는 소리>는 분단의 실체를 인식하고 분단극복을 지향하는 민족문학 분야에 중요한 업적을 보태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¹²⁾

윤정모의 <어머니>는 월남전에서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워 박사를 만들고 장관을 만드는 꿈으로 온갖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학비 조달을 한다. 그러나 아들이 데모하다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배신감을 느낀다. 10년이나 돌보던 더덕밭을 황폐하도록 버려둔 채 어머니는 망연자실해 한다. 면회를 오지 않는 어머니에게 보낸 아들의 편지.

주섬주섬 짐을 꾸려 아들을 면회하기 위하여 떠나는 어머니의 쓰라린 가슴 속에서 우리는 아들의 뜻을 이해하고 강인하게 변화하는 어머니의 형상을 보게 된다.

김인숙의 <함께 걷는 길>은 노동자 출신 부부가 돈독한 신뢰와 애정으로 함께 걸어가는 길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희재 엄마는 가정을 외면하고 노조일에만 몰두하는 남편을 서운하게 여기는 평범한 노동자 아내이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과 같은 노동자 출신이기에 누구보다도 그 일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생활상의 어려움 때문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노조일에 바빠서 아이의 돌 때도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남편 대신 완고한 가족들의 비난을 견디기에 난처해한다. 그런데 원망을 품고 현장을 찾

12) 염무웅, <분단 현실의 소설적 탐구>, 《겨울의 빛》(해설), 창작과 비평사, 1986.

아간 이후 서서히 남편의 뜻에 따르게 된 회재 어머니는 다시 현실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 강인하고 적극적인 인물로 변해간다.

작가는 이를 통해 혼자보다는 함께 이루는 일의의미와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여성문제의 올바른 관점을 남녀 간의 성적 대결 내지는 성 억압의 문제가 아닌 인간해방의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문제 자체를 사적인 차원의 문제로 끝냈으며 사회와의 관련성을 갖지 못한 점이 아쉽다. 분노와 적개심으로 여성억압의 사례를 고발하고 폭로하는 데에만 머물러서 여성문제를 성차별이라는 남녀 대립적 좁은 틀 속에서 바라다본 폐쇄적 측면이 있다. 냉정히 말해서 현 단계 우리 여성문학의 수준은 몇몇 작가의 빼어난 작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아직 고발문학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이제는 여성문제를 어느 개인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구조를 묶고 있는 전체적이며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라는 투철한 구조적 인식으로 여성문제를 진지하게 짚어나갈 때이다. 한을 풀어버리고 자기 언어를 가져야 한다.¹³⁾ 모든 것과 어우러져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바람직한 여성문학의 방향은 남녀 간의 성 억압의 문제가 아닌 인간해방을 위해 남녀가 함께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어야 하며, 여성 개인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사회와 역사의 관계에서 인간해방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新時期 중국 여성소설의 특징

1) 여성의식의 대두

1976년부터 중국사회는 다시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며, 이때부터 문예가 해방

13) 고정희, <소재주의를 넘어 새로운 인간성의 실현으로>, 《문학사상》, 1990, 2.

되고 여성문학도 비약적으로 발전되는 시기를 맞게 되니 여성문학의 변형시기를 누리게 된다. 이 시기를 新時期라고 이르게 된다. 1979년 당시의 중국사회는 정치와 경제상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 같은 변화는 우선 학술과 문예발전에 도 대단한 변화를 가져왔다. 연안문예강화의 세가지 몸둥이 즉 工·農·兵의 사슬에서 벗어나 소재나 제재, 표현방법, 사상 등의 모든 권리가 작가들에게 되돌려진 것이다. 더욱이 이같이 변화된 개방상황에서는 女作家가 男作家에 비해 더 큰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껏 여성작가가 받아온 제한이 남성작가에 비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작가는 그녀들만의 무거운 제한에서 갑자기 해방되어 나와 물밀 듯이 그녀들의 창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단을 향하여 돌진을 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여성문학이 변형을 이루게 된 것은 또한 신시기 개방 물결과 함께 서구사상이 유입되면서 여성주의 인식이 확산된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여성주의라고 번역되고 있는 페미니즘이란 1960년대를 거치면서 활성화된 범세계적인 여성운동과 궤를 같이 하며 등장한 사조라고 할 수 있다. 문학에 있어서 페미니즘은 기존의 문학과 사회에 편재해 있는 남성의 성차별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공격에서부터 여성들에 의해 씌여진 문학작품을 발굴해내고 또 해석함으로써 여성문학의 전통을 확립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있다. 즉 女性主義文學이란 한마디로 말해 여성의 억압상태를 밝히고 그 억압이 사회구조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나아가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위해 이러한 억압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밝히는 여성주의를 그 기본관념으로 하고 있다.

이 시기 대표적인 여성작가로는 張潔, 張抗抗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작품은 傷痕文學을 시작으로 정치투쟁의 현장에서부터 평범한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가지각색의 인간의 삶을 응시한 작품이 많이 나타났고, 소외와 휴머니즘을 다룬 인간의 문제를 점점 부상시켰다. 또한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통하여 느꼈던 억압과 박해에 대한 깊은 연구를 과제로 삼았다.

이 시기 여성작가들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작가의 여성 의식과 사회 의식의 표출로 나눌 수 있다. 王緋는 이 두 가지 특징을 여성문학

의 제1세계와 제2세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¹⁴⁾ 이는 여성문학의 제1세계 즉 내재 세계와 여성문학의 제2세계 즉 외재세계를 이른다. 여성문학의 제1세계는 여성 자신의 세계에 대한 개척이며 여성이 자아를 표현한 것이다. 여성문학의 제2세계는 여성세계 이외의 모든 사회의 인간 삶에 대한 표현을 일컫는다. 여성문학의 이 두 세계는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서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張抗抗은 “우리는 두 세계가 필요하다.”¹⁵⁾고 호소하고 있다.

張抗抗 여성문학은 5·4시기 여성문학의 제1세계를 계승하였다.¹⁶⁾ 그러나 5·4시기에 비해 여성의 생활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여성 자신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여성세계 이외의 인생을 탐구하게 되었으며, 여성의 의식은 광범위한 사회배경 안에 융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新時期 여성 문학은 동시에 3·40년대와 5·60년대 여성문학의 제2세계를 계승하였다.¹⁷⁾ 3·40년대 5·60년대 중국의 전쟁과 사회주의 혁명시대에 엄폐되었던 여성의식이 그대로 남아 계승되었으며, 거기다가 여성세계 이외의 사회의식이 포함되어진다. 그러므로 이 시기 여성작가들의 여성의식은 여성세계를 초월하여 모든 사회와 인생 가운데 투사되었다.

여성의 생활감정과 사랑의 감정, 괴로움 그리고 모성 등을 묘사하거나 남녀평등을 추구하여 여성의 독립된 인격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성의식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은 1982년 발표된 張潔의 <方舟>이다. <方舟>는 세 명의 이혼한 여자가 홀로 사회에 적응해나가는 고난의 역정을 묘사하였다. 方舟의 의미는 돌이 나란히 가는 배, 뗏목이라는 뜻이다. 사회 속에 표류된 세 여자의 인생을 망망대해의 뗏목으로 비유했으며, 그것은 그 여자들의 불행한 삶을 상징하기도 했다. 이 세 여자는 가정에서의 가부장제는 벗어났지만, 오히려 사회 속에서의 남성 우월주의는 벗어나지 못했다.

또 이 작품보다 약간 앞서서 張潔은 <愛, 是不能忘記的>을 발표하였다. 혁명적

14) 呂晴飛 主編, 《中國當代青年女作家評傳》, 中國婦女出版社 1990, p.4

15) 張抗抗, <我們需要兩個世界>, 《文學評論》, 1986년 1기

16) 呂晴飛 主編, 《中國當代青年女作家評傳》, 中國婦女出版社 p.6

17) 呂晴飛 主編, 《中國當代青年女作家評傳》, 中國婦女出版社 p.6

도의심에서 애정이 없는 결혼을 한 남자와 이혼한 여성과의 비련을 그리고 있다. 당과 국가와 계급이라는 강대한 압력 하에 이루어지게 된 애정 없는 결혼이 봉건 시대의 부모의 명령에 따라 결혼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 작품은 그때까지 금기였던 사랑이라는 테마를 주제로 삼아서 창작한 첫 번째 작품으로 의미가 있다.

결혼문제를 통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소설로는 張抗抗의 <北極星>이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陸岑岑은 불행한 결혼을 통해 고통을 겪으면서 진정한 애정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 속에는 진정한 애정과 불행한 결혼이 여성에게 가져다 주는 고통을 제기하여 혼인의 자유를 요구하고 또 정당한 이혼의 권리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이 시기 여성작가의 소설은 결혼이나 애정을 제재로 한 것이 많으며, 이런 제재의 작품을 처리할 때 남자에 의해 운명이 정해지는 피동적 위치에 대해 분노하고 반항하였다. 중국의 범률상 경제상에는 남자가 평등했지만 수 천년동안 내려온 남존여비의 전통 관념은 그대로 존속되어 여성을 억누르고 있었다.

이외의 작품으로는 喬雪竹<尋麻崖>, 王安憶<當長笛solo的時候><雨,沙沙沙>, 張抗抗<愛的權利>, 問彬<心際>, 張潔<誰生活得更美好>, 葉文玲<心香>, 鐵凝<沒有鈕扣的紅襯衫> 舒婷<致橡樹>, 劉西鴻<月亮搖晃着前進> 등이 있다.

2) 충만한 역사의식과 민족의식

중국여성문학에는 여성의 자아발견, 사랑의 감정, 男尊女卑의 불평등 문제 등 여성의식을 다룬 작품들과 여성의식을 초월하여 사회현실을 주시하고 남성작가들과 별반 다른없는 사회 역사 민족 의식을 다룬 작품들이 있다.

여성문학 중에 사회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30년대 들어서서 국내전쟁과 민족전쟁을 겪으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여성작가들은 여성의 문제를 뒤로 돌리고 혁명과 민족의식에 공헌하게 된다. 新時期 여성문학에는 여성의식보다 사회의식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2·30년대부터 시작된 중국의 굴곡 많은 역사를 겪은 후에 여성작가들은 불평등한 여성의 운명을 밝히는 여성의식을 초월

하여 여러 가지 인간의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며 여성자신 뿐만이 아니라 남·녀가 함께 직면한 사회현실에 눈을 돌리게 된다. 이러한 여성문학의 제2세계¹⁸⁾는 여성작가들의 사회·인생에 대한 관조이며 광활한 심미세계가 된다. 여성작가 張抗抗은 그녀의 작품 대부분이 인간의 문제 즉 제2세계의 남자와 여자가 직면한 공동의 생존과 정신위기를 다루었다고 말했다. 다시 그녀는 '10년간의 억압과 사상의 속박에 대하여, 1978년 이래 新時期 사람들의 정신해방과 가치관이 새롭게 확립되어야 한다.'¹⁹⁾고 했다.

여성작가들은 사회 민족 국가의 흥망 속에서 함께 고뇌하며 모든 주의력을 집중하게 되었으니, 그녀들의 머리 속에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위치는 여성자신의 운명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처럼 신시기 여성작가들의 문학 창작은 강렬한 사회 책임감을 동반하고 있었다.

張潔의 <沈重的翅膀>에서는 사회경제체제의 모순을 파헤치고 있으며, 王安億의 <大劉庄>과 <小鮑庄> 그리고 張抗抗의 <隱形伴侶>에서는 형이상학적 철학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謙容의 <人到中年>에서는 여성인물 陸文婷은 성별의 한계를 뛰어넘어 작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가 없다. 당시의 여성 작가들은 사회현실에 대하여 성별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회 국가 민족을 주시하고 있었으니, 이러한 문학적 성과를 '남자를 찾지 않는 문학'²⁰⁾이라든지 '女性美'와 '胭脂粉 냄새'가 적은 문학²¹⁾이라고 해석하기로 했다.

1979년 이후에 출현한 여성작가들은 대부분 교사 기술원 등의 직업에 종사하였으며, 謙容·張潔은 문화대혁명시기에 당시 남자들과 똑같이 농촌이나 변방으로 가서 노동에 종사하였다. 그녀들은 남성들과 어떤 구별이 없었다. 더군다나 중국문학은 전통적으로 文以載道를 중시하여 작가들이 사회현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다. 이 시기 여성작가들도 中性의 눈²²⁾으로 사회현실을 주시하고 문제를 살

18) 張抗抗, <我們需要兩個世界>, 《文學評論》, 1986년 1期

19) 張抗抗, <我們需要兩個世界>, 《文學評論》, 1986년 1期

20) 盛英 主編《二十世紀中國女性文學史·上》, 天津人民出版社, 1995, p4

21) 盛英 主編《二十世紀中國女性文學史·上》, 天津人民出版社, 1995, p4

22) 李子云 <近七十年來,中國女性作家創作的特徵>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10期, 1986, p130-134

피는 데에 익숙하였다. 여성의식을 초월하여 제재선택, 제재처리 관점에 이르기까지 남성 작가와 별 차이가 없었다. 張抗抗은 말하기를 “그녀들이 쓴 것은 인간의 문제로서 이 세상남자와 여자가 직면한 공동의 생존과 정신적 위기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²³⁾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으로는 謙容의 <人到中年>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시대적 병폐를 따끔하게 충고하며 어떠한 여성적 색채도 드러내지 않았다. 내용은 안과 여의사 陸文婷이 받은 매우 열악한 대우와 힘든 생활고를 서술하면서 지식인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제기하였다.

그 외 젊은 여성작가인 喬雪竹이나 蔣璞은 <今夜霜降> <水包子>를 통해 농촌의 어제와 오늘을 썼는데, 문장이 굳고 엄숙하여 역시 여성작가의 냄새를 풍기지 않는 작품들이다. 또한 張潔의 <沈重的翅膀>, 王安憶의 <水滸庄>, 張新欣의 <北京人> 등도 여성의 연약하고 감상적인 정서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런 종류의 여성 의식을 초월한 작품은 이 시기 여성작가의 작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新時期 문학의 성과는 그 동안 工·農·兵에 얽매어 있던 시술에서 벗어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광범위해지고 다양해졌다. 또한 전체적으로 문학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놓았다. 작품의 예술적 개성을 증강시켜 여러 층차와 수준을 균형있게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90년대 문학의 진일보한 번영을 위해 견고한 초석을 세웠다.

신시기 중국여성문학에서 보이고 있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는 ‘中性的 눈’²⁴⁾이라든지, 중국여성문학의 ‘無性化 현상’²⁵⁾ 또는 중국 여성문학의 ‘雄花현상’²⁶⁾은 이 시기 여성작가들의 사회와 역사와 민족을 바라보는 성별을 초월한 견고한 안목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 여성문학의 발전은 사회, 역사, 민족의식이 충만했었다. 인간 각성이라는 과정 속에서 여성도 인간이라는 각성을 하면서 사회 역사 민족 속에서

23) 張抗抗, <我們需要兩個世界>, 《文學評論》, 1986년 1기

24) 李子云 <近七十年來,中國女性作家創作的特徵>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10期, 1986, p130-134

25) 盛英 主編《二十世紀中國女性文學史·上》, 天津人民出版社, 1995, p,22

26) 吳黛英, <女性文學雄花之我見>, 《文藝評論》 2期, 1988

남성과 더불어 공헌하고자 했다. 오로지 여성미를 코에 걸고 사랑 이야기에만 탐닉하지 않았으며, 결혼제도 속에서 불합리한 여성의 위치만을 불평하지 않았다. 이러한 여성문학 발전의 토대는 1949년 이후 土地改革이나 新婚姻法制定으로 여성이 법률적·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할 수 있게 만들었다. 앞으로 중국 여성문학이 더욱 발전하면서 여성의식과 사회 역사 민족의식이 함께 어우러져 참다운 인간의 문학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5. 결론

한·중 여성문학의 대두는 양국의 사회와 역사의 변화를 좇아 발전하였으며, 여성문학의 발전 단계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1917년 한국에서는 최초의 여성소설이 등장하였으며, 1945년 8·15해방과 1950년의 6·25전쟁, 1960년의 4·19혁명과 5·16 혁명 등의 역사적 변란을 겪으나, 여성해방은 성취하지 못하고 산업화의 물결은 사회를 급변시킨다. 1970년대 민중운동이 시작되면서 노동문제와 더불어 여성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그러나 여성해방문학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대두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였다.

중국 여성문학의 발전의 시작은 시기적으로 한국과 비슷하여 1919년 5·4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내전과 1930년대 중일전쟁, 그리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966년 문화대혁명과 1976년 모택동 사망 후에 신시기가 도래하였으며, 중국문학이 현대화 되는 과정에서 여성문학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양국 모두 1980년 중반부터 서구에서 유입된 여성해방운동의 영향으로 여성문학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1980년대 시작한 한국여성소설은 그 시작이 민중문학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창작의 성과는 중산층 여성들의 자아정체성의 추구라든지, 가정생활에서의 가부장제에 도전하는 남녀평등의 문제에 치중해 있었다. 여성문학의 제1세

계인 내재 세계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민중문학의 영향으로 사회의식이 나타난 작품들도 있다. 즉 여성문학의 제2세계인 외재세계가 강하여, 여성 자신이나 가족의 한계를 벗어나서 사회 속에서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 성과는 미미하였다. 아직 한국여성문학은 여성문제를 사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 내려놓고, 사회와의 연관성을 찾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중국여성문학의 발전은 신시기를 맞이하여 서구에서 유입된 여성해방운동의 영향으로 여성문학의 성숙시기에 접어들게 된다. 여성문학의 제1세계인 내재세계를 다루고 있는 남성우월주의와 싸우며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작품과 불행한 결혼과 남존여비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중국 여성문학의 커다란 성과는 여성문학의 제2세계인 외재세계 즉 사회와 역사 민족의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신시기 중국 여성문학에는 여성의 내재세계 보다도 외재세계 즉 사회 역사 민족의식이 더 강하게 나타나 있다. 어떤 작품은 작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 없다. 중국여성문학의 '여성화'²⁷⁾라든지 '웅화'현상²⁸⁾은 바로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는 상태 또는 강인함의 추구로 남성화 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서 한국 여성문학의 한계가 중국 여성문학의 웅화 현상을 통하여 타파되는 것을 목도 한다. 또한 한국과 중국에 있어서의 여성문학의 상이함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의 여성의식에도 상당한 상이함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 여성이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답안을 찾아내야 한다. 물론 중국 여성이 한국 여성 보다도 더 많은 역사적 변란을 겪었으며 이러한 역사적 고통은 일반적 여성문학에 나타나는 아름다움으로 진지함을 감추고, 화장품 냄새를 풍기는 여성문학의 오류가 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더 정확한 해답은 중국 역사의 사건 속에 여성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은 1950년에 공포된 <中華人民共和國新婚姻法>이다. 이 혼인법이 공포된 후에, 중국 여성들의 목을 옥죄어 왔던 매매혼 축첩제 등의 억압 속에서도 이혼할 수 없었던 여성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중국여성사의 입장에서 보면 천지가 뒤바뀔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었으며

27) 星營 主便《二十世紀中國女性文學史·上》, 天津人民出版社, 1995, p4

28) 吳黛英, <女性文學雄花之我見>, 《文藝評論》2期, 1988

여성의 지위가 확고해진 사건이었다. 또 하나의 중국여성사의 중요한 사건은 모택동이 실시한 1950년의 토지개혁법이다. 이때 여성들은 남편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기 몫의 토지를 부여 받게 되며, 이것은 여성의 지위가 안정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이러한 중국의 여성해방 운동의 영향으로, 중국여성작가들은 여성 개인의 안목에서 벗어나 역사와 민족의식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參考文獻》

- 梁之眞, 《中國婦女文學史綱》 開明書店, 1932.
- 謝無量, 《中國婦女文學史》 中華書局, 1933.
- 譚正璧, 《中國女性文學史話》 百花文藝出版社, 1984.
- 康正果, 《風騷與艷情(中國古典詩詞的女性研究)》 河南出版社, 1988.
- 陳素琰, 《文學廣角的女性視野》 花城出版社, 1988.
- 揚義, 《文化衝突與審美選擇》 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88.
- 揚義, 《浮出歷史地表(現代婦女文學研究)》, 1989.
- 樂樂, 《遲到的潮流(新時期婦女創作研究)》 河南出版社, 1989.
- 張京媛 主編, 《當代女性主義文學批評》 北京大學出版社, 1992.
- 劉思謙, 《娜拉言說 - 中國現代女作家心靈紀程》 上海文藝出版社, 1993.
- 呂晴飛 主編, 《中國當代青年女作家評傳》 中國婦女出版社, 1995.
- 盛英 主編, 《二十世紀中國女性文學史》 天津人民出版社
- 杜芳琴, 《發現婦女的歷史》 天津社會科學出版社, 1996.
- 王友琴, <中國現代女作家的小說和婦女問題>, 《北京大學學報》, 1985
- 李小江, <婦女研究與婦女文學>,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871, 1986.
- 李子云, <近七十年來中國女作家創作的特徵>,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1071, 1986.
- 張抗抗, <我們需要兩個世界>, 《文學評論》171, 1986.
- 趙玟, <知識女性的困惑與尋求>,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171, 1987.

- 徐劍藝, <論新時期婦女文學的超越>,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3기, 1987.
- 吳黛英, <女性文學雄化之我見>, 《文藝評論》2기, 1988.
- 荒煤, <關於女性文學的思考>,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10기, 1989.
- 樂黛雲, <中國女性意識的覺醒>,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11기, 1991.
- 劉思謙, <關於中國女性文學>,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5기, 1993.
- 樂黛雲, <女性研究的回顧與展望 - 從中國傳統與當代文學的女性談起>, 《中國學研究》, 1994.
- 毅眞, <中國當代女作家>, 《婦女雜誌》, 16권 7기
- 김윤식, 《80년대 우리문학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1989.
- 정영자, 《한국 현대 여성 문학론》 도서출판 지평, 1988.
- 서정자 엮음, 《한국 여성 소설선 1·II》 갑인출판사, 1991.
- 송지현 엮음, 《소설로 보는 여성문제·길찾기》 동녘, 1993.
- 오현주·서은주 엮음, 《그대 지금 어디있는가?》 여성사, 1993.
- 조혜정, 《글 읽기와 삶 읽기(1)》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2.
- 박혜란, 《삶의 여성학》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3.
- 오정희, 《바람의 녀》 문학과 지성사, 1986.
- 김향숙, 《겨울의 빛》 창작과 비평사, 1988.
- 박완서, 《살아있는 날의 시작》 세계사, 1993.
- 이경자, 《절반의 실패》 도서출판 푸른 숲.
- 홍정선, <한 여자 작가의 자기 사랑> 샘이 깊은 물, 1985.11.
- 고정희, <한국 여성 문학의 흐름> 《또 하나의 문화》 제2호, 1986.
- 조혜정, <한국 페미니즘 문화 어디까지 왔나?> 《또 하나의 문화》 제3호, 1987.
- 김경연 외,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본 박완서의 작품세계> 《여성2》, 1988.
- 이명호 외, <여성해방 문학론에서 본 80년대의 문학> 《창작과 비평》 18권1호, 1990 봄.
- 조혜정, <한 시슬풀고 자기 언어 가지기> 《문학사상》, 1990.2
- 고정희, <소재주의를 넘어 새로운 인간성의 실현으로> 《문학사상》, 1990.2.
- 박혜경, <분노와 대결을 넘어서> 《문학사상》, 1990.2

《中文提要》

韓·中兩國女性文學的抬頭，隨着兩國歷史社會的變化而發展，女性文學的發展階段可說非常相似。

比較韓國女性小說與中國女性小說的特質，我們可知兩國發展樣式有所差異。韓國女性文學得以發展，可說是由1970年代民衆文學而開始的文學深入民衆的生活之中。而且，雖然指出了女性問題，但仍只停留在私人的層面上，無法與社會作出關聯性。相反地，新時期中國女性小說，有些作品令人無法分辨出作家是女性或是男性。

那是因爲，中國女性文學發展的基礎，在1949年之後，於土地改革或婚姻法制定上，女性在法律上，經濟上於某種程度能有所獨立之故。未來，韓·中兩國的女性文學更要更爲發展，應調和女性意識與社會意識，將女性文學升華爲真正的文學。

關鍵詞：女性小說，女性文學，女性主義

KCS I